

Muller, European Intellectual History as Contemporary History.

유럽 현대사(20세기사)의 기술은 (1) 규범적 목적을 띠며, (2) 국가적 맥락 속에서, (3) 전례없는 잔혹함과 폭력의 시기를 기술하는 일임. crisis history, age of extremes, age of ideologies 두 극단적 전체주의, 반자유주의 사상의 추적 작업으로 규정됨.

냉전적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

“20세기 전반 이념의 시대가 가져다 준 정치적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프랑크대혁명 이래 대중정치 혹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등장으로 보거나, or 독일의 특수한 high intellectual history, or 지적/사상적 사건(일관된 사상체계)이라기 보다는 독일사 혹은 러시아사에 특유한 pathology, German peculiarity, 감정의 수준에서 얘기되어짐.

Bracher: 진보에 대한 믿음의 상실에서 나온 결과

Furet: 부르조아의 자기혐오

이런 점에서 유럽에서 냉전기 지성사는 일종의 지적 청소(intellectual cleansing) 작업; 서양 자유주의 지적전통에서 과도이탈한 시기; 정치/사회사에 비하면 주변적 지위에 놓임. but 말시즘 계열의 이데올로기적 비판.

반면 미국에서 지성사의 부상: 소련, 나치에 대한 서양문화의 축복이란 맥락에서 서양문명(사)는 도덕교육, 정치이데올로기, 그러나 곧 쇠퇴(New Left 등장)

당시 부상한 세 지성사 조류는 현대사 연구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

1) 독일의 개념사학파(Bielefeld School)의 경우- 이들 연구관심은 구조적 변화, 갈등, 신이념의 분출 등을 수반하는 개념의 안착기(sattelzeit)에 집중됨. 긴 시간의 역사를 분석하는 이들에게 21세기 현대사는 너무 짧은 사례임. 특정 어휘의 정의/의미변화에 주목하는 연구자에게 더욱 그러함.

2) Cambridge School의 경우, 현재/현대의 맥락(context)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히지 못함.

3) Linguistic turn: 냉전적 자유주의의 규범적 기반을 위협하는 반면, 20세기초에 대한 의미의 독자성과 경험의 존재(irreducibility)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비판하기 어려움. 미국학계는 실증주의 전통과 함께 intertextuality, 담론분석, 권력/지식 관계 등 이들을 선택적으로 수용.

결과적으로 지성사는 20세기 역사 기술에 큰 기여하지 못함.

탈냉전 현대사: 자유화(liberalization)의 역사 설명, 반드시 반자유주의로부터 자유주의란 단선적 사관이 아니더라도 비자유주의적 사상/사고가 재해석, 변화, 창조적 활용 등을 추적하는 작업.

- 반-서양 이데올로기 분석(a science of the enemy): 어떻게 20세기 전반 극단적 이데올로기가 생존하여 동유럽, 중동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 비교정치이론으로서 타자 연구

필자의 제안:

20세기는 극단적 이데올로기간 경합의 역사; 20세기 유럽인들은 이데올로기를 자신의 문제에

대한 실제적 대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았음. 이런 점에서 지성사 분석이 중요.

1) 캠브리지 학파의 복권: 정당화(legitimation)로서 담론 분석이 유용함.

2) 개념사 학파: 개념사학파는 “근대”로의 변환과 연결되는 전통적 개념사 연구에서 벗어나 개념이 새로운 역사/문화적 맥락에서 항상 경합되고 재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전 과거와 현재에서 개념의 의미를 고정하려는 시도들을 포착해 낼 수 있음. 2세기 극단의 이데올로기 분석하는 데 인물/지식인이나 정서적 태도/정향 등과 대조되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함.

예) 민주주의의 개념사 필요

대중적 정당화(mass legitimation) 즉, 개인적 카리스마나 정교한 관료제 등 보다 확장적이고 분명한 정당화 필요한 현실 -> 민주주의(age of democracy); 심지어 파시즘, 공산주의 국가도 민주주의 내걸었음. 개념사 연구방법은 변화하는, 새로운 맥락에서 개념들이 치환되는 (transposition) 것을 이해. 권위주의국가(파시즘 등)들이 민주주의 약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일정하게 담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민주주의적 가치를 표면적으로라도 재맥락화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적 의미를 창조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음.